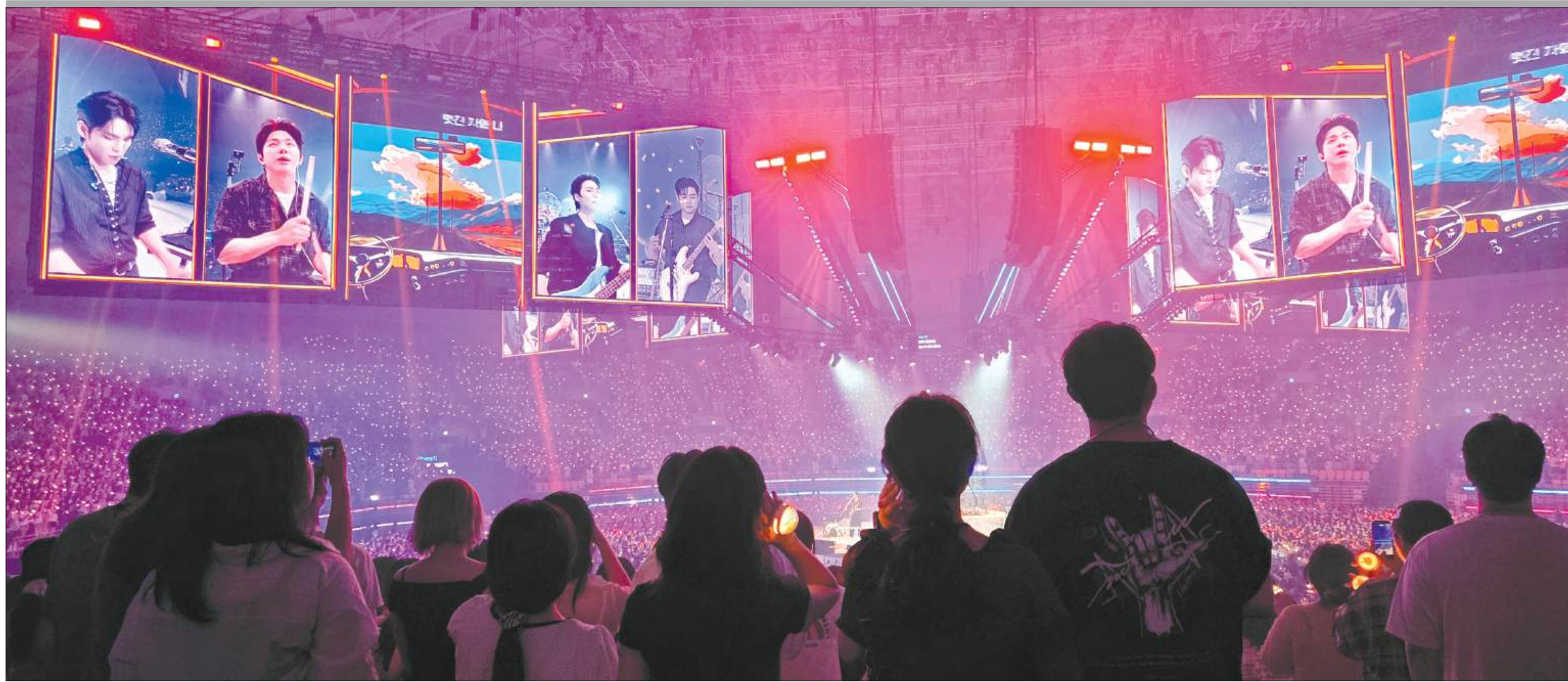




DAY6(데이식스)의 데뷔 10주년 콘서트가 열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착용한 난청인 관객들이 청취보조시스템 '오라캐스트'로 공연을 즐기고 있다.

[사진 JYP엔터테인먼트]

보청기를 끼고 ‘DAY6’ 콘서트에 가다

〈데이식스〉

난청인 위한 청취보조시스템 도입 DAY6 데뷔 10주년 서울 콘서트 현장

“음악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유은아(가명·28)씨가 말했다. 은아씨는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보청기가 없으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렵지만 음악은 늘 곁에 두고 산다. K팝 밴드인 DAY6(데이식스)의 열성팬이기도 하다.

“데이식스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어폰으로 듣는 것도 이렇게 좋는데 공연장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3일 데이식스의 데뷔 10주년 콘서트가 열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KSPD DOME)에서 은아씨를 만났다. 데이식스 팬임을 인증하는 민트색 ‘마데워치(응원봉)’를 왼손에 차고 있었다.

은아씨를 포함해 7명의 난청인이 약속한 부스 앞에 모였다. JYP엔터테인먼트와 사단법인 히어사이클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청각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참가자들이다. 난청인 관객이 공연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최신 청취보조시스템 ‘오라캐스트(Auracast)’를 공연장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청각장애인이 공연장에 가는 이유

본격적인 ‘K팝 시대’가 열렸지만 국내 난청인은 여전히 공연 문화에서 소외돼 있다. 2026년 기준 우리나라 난청 인구는 300만명. 일상에서는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음악을 들지만 공연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벽과 천장에 부딪혀 울리는 반향(소리울림) 때문에 아티스트의 목소리도 악기 소리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은아씨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기대를 안고 콘서트장에 갔지만 팬들의 함성과 밴드 사운드, 주변 소음들이 뒤섞여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리거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래도 계속 공연을 보러 갔어요. 비록 다 이해하진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음악을 느끼는 그 자체로 행복하니까요.”

오라캐스트는 공연장의 반향과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새로운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히어사이클이 오라캐스트 보급을 이끌고 있다. 히어사이클은 난청인의 청취 환경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법인으로, 청각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우승호 대표가 해외에서 직접 기기를 구입해 들

여왔다.

“쉽게 설명하면 오라캐스트는 공연하는 가수의 목소리와 악기 소리만을 잡아내 난청인의 보청기로 직접 전달해 주는 기술입니다. 주변 잡음을 차단해 선명하게 들려주는 노이즈캔슬링 기술과 비슷합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히어사이클에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K팝 공연장 최초로 난청인을 위한 청취보조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공연 접근성 개선은 음악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정성 있는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라는 판단이었다.

지난 5월 데이식스 원필의 솔로 콘서트에서 오라캐스트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이번 데이식스 데뷔 10주년 서울 콘서트에서는 규모를 확대해 운영했다. 7월 3일부터 사흘간 21명의 난청인 관객을 초청해 오라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백! 드럼 소리가 귀에 꽂혔다

엄마와 함께 공연을 보러 온 중학교 3학년 박민호(가명)군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었다. 콘서트에 온 것도 처음이고, 음악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닌데 어떤 일인지 이번에는 공연장에 꼭 가고 싶다고 엄마를 졸랐다.

오라캐스트 수신기를 통해 민호의 인공와우 기기로 노랫소리가 전달됐다. 조금씩 음악을 느끼며 민호가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음악을 멀리했던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

은아씨도 한 손에는 응원봉을 다른 손에는 수신기를 들고 신나게 공연을 즐겼다.

“데이식스 노래 중에 ‘Congratulations’이라는 곡이 있어요. 노래가 시작될 때, 팬들이 흔히 ‘쿵쾅’이라고 표현하는 상징적인 드럼 연주가 있거든요. 이번 공연을 듣는데 그 드럼 연주가 그대로 딱 들려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는 “오라캐스트를 연결하는 순간 주변 소음이 모두 차단되면서 공연 사운드만 보청기로 들어왔다”면서 “그동안 다른 팬들이 남긴 공연 후기를 보며 멤버들의 멘트, 보컬, 악기 연주를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공연으로 아쉬움이 많이 해소됐다”며 웃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3면 ‘청각 접근성 프로젝트’로 계속

‘2026 더기버스50’ 3차 명단 공개

꾸준한 나눔 이어온 기부자 10인 선정

2026년도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50) 3차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에는 김맹근·김태욱·대원스님·문군모·백태규·손단비·손영학·여흥구·오시훈·정혜라 등 10명이 선정됐다. 시각장애인, 지역 사업자, 평범한 직장인, 온라인 강사 등 직업과 경험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나눔을 이어온 기부자들이다.

‘더기버스50’은 더버터가 주최하는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위크(Pie Week)’의 대표 프로젝트다. 파이위크에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해온 기부자 50인을 선정해 소개한다.

더기버스50은 비영리단체의 추천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0명의 기부자가 소개됐으며, 남은 20인은 파이위크 캠페인 홈페이지와 공익섹션 더버터 지면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속성, 태도, 스토리, 영향력,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부 금액의 규모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눔을 이어왔는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실천해왔는지, 주변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요하게 살핀다.

올해 진행되는 ‘2026 파이위크’에는 총 23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구세군, 국경없는의사회, 국제구조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재단,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해비타트, 함께하는사랑발, 환경재단, 홀트아동복지회, IJM코리아(이상 단체명 가나다순) 등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파이위크 캠페인에 동참한다.

최지은·문일요·박선하 기자

» 8면 ‘더기버스50’으로 계속

Inside

시각장애인과 카톡할 때 이모티콘 씁니다	C2
더버터, ‘2026 사회공헌 가이드’ 출간	C3
OSF가 아시아 젠더이슈에 기부하는 이유	C4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현장	C5
로컬 청년과 사회연대경제	C6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이영은·박찬주 매니저
- 문의 및 제보: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시각장애인도 카톡할 때 이모티콘 쏩니다”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접근성책임자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은 말보다 빠르게 감정을 전한다. 시각장애인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화면에 나타나는 표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스크린리더로 이모티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총 85만 개에 모두 ‘대체 텍스트’가 입력된 덕분이다. 이 기능은 비장애인들에게도 유용하다. 이어폰을 끼고 운동하거나 이동할 때 이모티콘을 포함한 전체 메시지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접근성책임자(DAO)는 10년 넘게 카카오의 디지털 접근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김 책임자는 각 계열사,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접근성 이슈를 체계화하고 서비스에 공통된 기준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30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아지트에서 만난 김 책임자는 “디지털 접근성”은 곧 서비스 품질이라며 “기능을 일부 고치는 차원을 넘어 개발과 운영 전 과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리더들이 모인다

-이모티콘 같은 세부기능까지 접근성 이슈를 반영하기 쉽지 않았다.

“비장애인은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 하면서 ‘원래 있던 기능을 앞으로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까지 걱정하진 않는다. 장애인 이용자는 다르다. 서로 ‘업데이트해도 그대로 작동해?’ 물어본다. 누군가가 먼저 업데이트라는 모험을 해본

뒤에야 안심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불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카카오 서비스가 워낙 많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주요 서비스 담당자들이 모이는 ‘접근성 테이블’을 연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한 달 동안 제기된 접근성 이슈와 앞으로 예정된 업데이트를 함께 논의한다. 최소한 카카오 안에서는 어느 서비스를 쓰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춘다. 여러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UI가 있다면 ‘카카오에서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처리하자’는 방향성을 합의하는 것이다.”

-회의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

“각 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업무 분야는 다양하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시 팀 안에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접근성 테이블로 가져온다. 카카오톡 서비스도 많이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이슈가 생겼을 때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찾는 일부터 쉽지 않다. 접근성 테이블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필요한 사람을 더 빨리 찾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

‘점검팀’이 된 장애인 직원들

-현재 책임자를 맡은 ‘디지털 접근성 전담 조직’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크게 보면 R&D와 접근성 테스트로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접근성책임자(DAO)는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기술은 이미 충분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서비스에 당연히 적용하겠다는 판단과 협력 구조”라고 말했다. 성남=이신영 기자

나눌 수 있다. R&D 담당자들은 접근성 기술과 해결 방법을 연구한다. 개발 역량이 있는 인력들이 해외와 국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카카오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한다. 접근성 테스트도 중요한 축이다. 장애 당사자를 포함한 접근성 담당자들이 실제 서비스와 업데이트된 기능을 직접 점검한다. 단순히 기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막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발견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나.

“내부 시스템에 등록해 담당 조직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연 2회 ‘접근성 실태조사’도 한다. 크게 ‘사용자 테스트’와 ‘전문가 테스트’로 나뉜다. 사용자 테스트에서는 로그인하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기 같은 과정을 정한 뒤 전맹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지체장애인 등 세 유형의 사용자가 해당 기능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전문가 테스트에서는 서비스의 주요 화면을 하나씩 검수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

“조사 결과는 CEO KPI에도 반영된다. 각 부서가 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다.”

-실제로 접근성이 점점 개선되고 있나.

“점수를 높이는 것만 생각하면 같은 항목만 반복해 조사하면 된다. 그럼 점수는 쉽게 오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부 항목을 매번 바꾸는데도 점수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무자들 반응은 어떤가.

“카카오는 출시 초기부터 접근성을 고려해온 경험이 오래 쌓여 있어 현업에서도 접근성을 서비스 품질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슈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기보다 ‘언제까지 해보자’ ‘어떤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답이 더 많이 나온다. 담당자로서 기쁘다.”

-디지털 접근성 확대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필수로 갖춰야 할 요소다. 유럽과 미국에는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한 기준과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접근성을 기업을 규제하는 장치로만 보면 안 된다. 결국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접근성 담당자로서 앞으로 만들고 싶은 카카오톡의 모습은.

“업데이트가 되면, 새로운 기능이 나오는 장애인 이용자가 카카오 서비스라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고 싶다.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접근성은 비장애인에게도 가끔 생각나는 주제일 수 있지만 장애 당사자에게는 일상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해결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성남=최지은 더버터 기자

경험을 넘어 몰입으로... 임직원 자원봉사의 공식이 바뀐다

‘제5회 넥스트CSR포럼’ 개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자주 꺼내는 고민이 있다. “임직원 자원봉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의 활동을 마련해도 좀처럼 모집되지 않고, 참여를 독려하면 ‘강제 동원’으로 비칠까 조심스럽다.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유도 세대와 조직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임직원들은 어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어할까. 기업은 어떻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까. 더버터가 주최한 ‘제5회 넥스트CSR포럼’이 ‘임직원 자원봉사,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과 재단 사회공헌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를 부르는 자원봉사는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황애경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상무는 “참여를 부르는 임직원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황 상무는 최근 자원봉사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특히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짧고 부담 없이 참여하는 ‘마이크로 자원봉사’에 대한 선호

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제는 온종일 시간을 내는 봉사보다 한두 시간 안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자원봉사를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직원 몰입(Employee Engagement)’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직원들의 몰입도와 조직문화”라며 “자원봉사는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직원 경험과 소속감, 조직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0년부터 시니어 나들이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말벗 봉사에 머물지 않고 시니어 여행 전문 스타트업, 돌봄 서비스 기업 등과 협력해 창덕궁 특별관람, 한강 요트 체험, 공연 관람 등 어르신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처음에는 참가자 300명을 모집에 일주일일 걸렸지만 현재는 이를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윤영미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총장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기업들은 ESG 성과와 자원봉사 KPI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임직원들은 너무 바쁘고 동시에 의미 있는 활동을 원한다”며 “사회공헌 담당자는 매번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제5회 ‘넥스트CSR포럼’ 참가자들. 이날 포럼에서는 ‘임직원 자원봉사,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강은이 기자

을 짜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자원봉사 기획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로 ‘활동부터 정하는 방식’을 꼽았다. “이번에는 연탄을 나눌까, 나무를 심을까, 벽화를 그릴까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활동의 주인공은 임직원인데 정작 임직원에게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활동이 아니라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직원들이 말한 참여의 조건

발표 이후에는 김시원 더버터 대표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김정선 메트라이프생명 컴플라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오현택 SK이노베이션 PM, 정운영 삼성전자 프로가 참여했

다. 세 사람은 2030세대 직원으로 각 조직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해온 경험을 공유했다.

김정선 스페셜리스트는 걸음 수만큼 기부가 되는 ‘워크 투 헬프’를 비롯해 학교 교실 만들기, 어르신 나들이 봉사, 점자책 제작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캄보디아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집짓기 봉사에도 다녀왔다. 그는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도움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회에 순환시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현택 SK이노베이션 PM은 연구조

직에서 일하면서 사내 봉사단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는 약 80개의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조직별로 동아리처럼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임직원 참여를 독려한다. 오후 PM은 “CSR팀이 모든 직원을 직접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각 봉사단 코디네이터가 CSR팀과 현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조직 안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듣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운영 삼성전자 프로는 구미사업장에서 장애아동을 돕는 ‘온누리 봉사팀’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온누리 봉사팀은 2012년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설과의 인연으로 시작돼 14년간 중단 없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 프로는 “팀 리더를 맡았을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활동이 중단됐다”며 “당시 활동을 멈추기보다 만들기 체험 키트와 율동 영상을 제작해 비대면 방식으로 아이들과 교감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김시원 대표는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임직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이라며 “자원봉사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이 조직 안에서 의미와 관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

사회공헌 잘하는 곳 어디일까?

『2026 사회공헌 가이드』 출간 국내 우수 사회공헌 40개 수록

한국에서 사회공헌 가장 잘하는 곳은 어디일까. 기업과 재단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더버터가 최근 발간한 『2026 사회공헌 가이드』는 국내 사회공헌 현장을 한 권에 담아낸 책이다.

한국의 기업과 재단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해왔다. 전통적인 장학사업에서 시작해 제도와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돕고, 산불·지진·폭염·폭우 등 재난 현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후위기, 지역소멸, 초고령화, 고령, 디지털격차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정부와 시장

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매웠다.

사회공헌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성과를 알리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수많은 기업과 재단이 장기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이 같은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거나 공유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기업이나 재단이 만들어낸 혁신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사회문제 해결의 성공 사례들이 새로운 시도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버터 취재팀은 올해 2월 기업과 재단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회공헌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미래세대, 기후환경, 재난안전, 지역상생, 저출생·고령화 등 주요 사회문제 영역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40개를 선정해 책으로 펴냈다. 우수 사회공헌 사례와 전략, 트렌드를 한 권에 담은 종합 가이드북이다.

제1부에서는 우수 사회공헌 프로젝트 40개를 자세히 소개한다. 각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솔루션을 가졌는지,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성과와 임팩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제2부는 40개 프로젝트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TOP 3’에 오른 ‘사회공헌 스

토리 챔피언(Story Champion)’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SK텔레콤의 ‘AI 케어’ ▶숲 조성이라는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회혁신 조직을 발굴해 육성하는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의 ‘메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 등이 최종 챔피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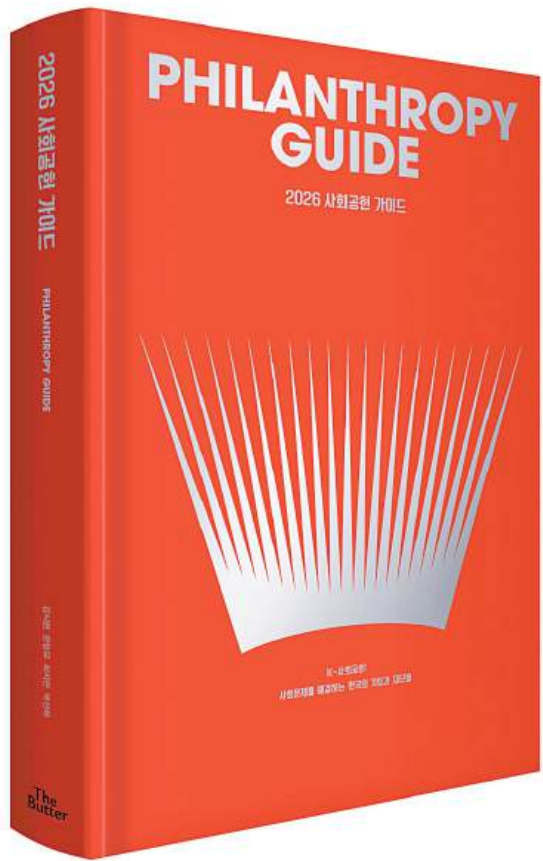
제3부는 기업·재단·비영리·공공 등에서 참고할 만한 사회공헌 전략과 트렌드를 담고 있다. 먼저 ‘K-사회공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 사회공헌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 가능성을 짚는다. ‘기업 사회공헌의 빈 곳을 찾아라’에서는 비영리 현장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공헌의 사각지대 7곳을 소개한다. ‘변화를 만드는 사회공헌 스토리텔링 전략’에서는 좋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원칙을 제시한다.

마지막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사회문제 해결 케이스를 소개한다. 기후위기, 보건, 주거, 디지털 포용 등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고 자금을 투입한 사례들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공헌의 성과를 아카이빙하고 확산하기 위한 첫 시도다. 기업과 재단의 리더에게는 사회공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무자에게는 전략과 레퍼런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는 사회문제 해결되는 과정을 이해시키는 최고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량 구매 문의는 더버터프레스(book@thebutter.org)로 하면 된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베네수엘라 지진 하루 만에... JYP, 월드비전에 3억 기부 결정

68억5000만원. 최근 5년간 JYP엔터테인먼트 인턴트(이하 JYP)가 월드비전에 전달한 기부금 규모다. 이 가운데 23억원이 산불과 지진, 화재 등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구호에 사용됐다.

JYP는 지난달 26일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하루 만에 3억원의 긴급구호 자금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금은 식량과 생필품, 식수·위생 지원, 아동 심리·정서 회복 등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월드비전은 이번 재난에 긴급구호 최고 단계인 ‘카테고리3’를 선포하고 5000만 달러(약 75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집계 따르면, 6월 기준 사망자는 3342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만6470명이고 이재민은 1만7345명이다. 시민들이 운영하는 실종자 신고 사이트에는 3만1000명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등록돼 있다. 특히 최대 피해 지역인 라과이라 일대에서는 구조 단계에서 생존 지원, 장기적인 복구 단계로 대응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JYP의 빠른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때 3억원, 이듬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때는 5억원을 내놔다. 지난해에는 경북 산불과 미얀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각각 5억원, 3억원을 기부했다.

이처럼 신속한 지원 결정에는 ‘EDM (Every Dream Matters!·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이라는 사회공헌 철학이 깔려있다. JYP는 ‘EDM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돕고, ‘긴급구호 사업’으로는 재난이 발생하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국가도 몽골·방글라데시·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멕시코·



지난달 30일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역에서 월드비전 관계자가 피해 지역 아동을 돌보고 있다. [사진 월드비전]

브라질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2021년 이후 치료비 지원 사업에만 45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

평상시에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돕고, 재난이 발생하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월드비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기부금이 현장 긴급구호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구조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에서도 월드비전은 현지 지부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식량안보, 영양, 식수·위생, 아동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JYP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과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전달받은 기부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회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난청인·비난청인 팬 함께 K팝 공연 즐겨

▶ 1면 ‘청각 접근성 프로젝트’에서 계속

장애와 인권에 대한 JYP 아티스트들의 관심은 이번 프로젝트의 토대가 됐다. 특히 원필은 오래전부터 청각장애와 수어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왔다. 김미경 JYP엔터테인먼트 지속가능경영팀장은 “더 많은 팬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의 의지를 공연 접근성 확대 프로젝트로 연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도 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라는 이번 프로젝트의 비전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난청인을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소셜 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는 “원필의 꿈이 이뤄지는구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데이스스가 자랑스럽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K팝 팬덤은 공익 활동의 진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티스트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의제가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때 팬들은 지지와 공감을 드러낸다. 이번 프로젝트가 호응을 얻은 것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모두가 함



‘마데워치(데이스스 응원봉)’를 손목에 찬 난청인 관객이 오라캐스트 수신기를 들고 소리를 듣는 모습(왼쪽 사진). JYP와 히어사이클이 진행하는 ‘청각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에서 난청인 관객들에게 지급되는 수신기와 안내문.

께 즐기는 공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K팝이 만드는 ‘인프라 필란트로피’

난청인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 거의 안 들리는 사람, 한쪽만 들리는 사람,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사

람 등 청취 방식과 특성이 모두 다르다 보니 오라캐스트를 도입하고 적용할 때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공연 당일 원활한 송수신을 위해서는 난청인 관객들이 사용하는 청각보조기기의 기종부터 전부 파악해야 한다. 오라캐스트를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연결하려면 기기 내 텔레코일(T모드) 기능이 활성화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야 한다. 송수신을 위해 필요한



[사진 JYP엔터테인먼트]

악세사리들도 미리 구비해 뒀야 한다.

우승호 대표는 “클래식 공연이나 다른 공연에 비해 K팝 공연은 변수가 훨씬 많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파일럿으로 진행한 5월 콘서트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리허설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공연이 시작되자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팬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이 원인이었죠.”

응원봉이 모두 블루투스 기반이라

오라캐스트 송수신에 간섭이 생기면서 수신기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신기를 두 대로 늘리고 난청인 관객들을 콘솔 근처 자리로 최대한 이동시켰다. 데이스스 10주년 공연 때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지만, 수신기 위치를 조정하고 공연장 내 전파 환경을 점검하며 시스템을 안정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난청인 팬과 비난청인 팬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장의 환경과 시스템을 바꾸는 ‘인프라 필란트로피 (Philanthropy)’로 주목받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각장애인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장 자체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7월 10~12일 열리는 트와이스 콘서트와 7월 25~28일 열리는 스트레이 키즈 콘서트에서도 오라캐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K팝의 영향력이 음악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는 도구로 확장하고 있다.

설득에서 공감으로… 인권운동의 흐름이 달라진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

“이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시대입니다. 인권운동 현장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은 차별을 설명하고 편견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교육과 세미나, 캠페인이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전시와 공연, 퍼포먼스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활동이 늘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하기보다 경험하고 공감하는 과정 자체가 인권운동의 새로운 방식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연구실에서 만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로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꼽았다. 올해 오픈소사이터티재단(OSF)과 다음세대재단이 추진하는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의 주제가기도 하다. 이번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그는 “인권운동은 의제뿐 아니라 운동의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인권운동의 핵심은 ‘소수자 안의 소수자’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 함께 공감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다양한 삶’ 포괄하는 인권의 언어

-‘젠더 정의(Gender Justice)’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합니다.

“아직은 낯선 용어가 맞습니다. 학계와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지

만 널리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정의’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단순히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별과 불평등, 억압과 폭력, 권력의 남용까지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성평등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뜻인가요.

“예전에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젠더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더 폭넓게 설명하기 위해 ‘젠더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성별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실질적인 평등까지 함께 고민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선발된 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운동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대중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 실험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쉽게 떠올리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호신술 프로그램도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젠더 정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자립을 돕고, 젠더 관점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의 형태보다 문제의식에 무게를 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인권운동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신영 기자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애여성, 농인, 성소수자처럼 여러 차별이 동시에 작동하는 문제를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차차별 혹은 복합차별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활동도 점차 나타나고 있어요. 기존의 인권활동이나 학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인권운동 지원사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물론 영향력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면 의미 있는 실험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젠더 정의는 사회 인

식과 문화의 변화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젠더 정의’ 여성만의 의제 아니다

-한국에서는 젠더 담론이 갈등의 언어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드러내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계몽하거나 가르치려는 방식은 오히려 거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과 공감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온라인에서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갈등을 키우기 쉽습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함께 경험하는 활동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젠더 이슈는 노동이나 돌봄, 장애 등 다양한 영역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바로 그래서 ‘젠더 정의’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젠더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 역할과 권력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노동과 돌봄, 장애, 성소수자 문제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조직이나 규모를 앞세우기보다 프로젝트 팀 단위 활동도 눈에 띕니다.

“인권운동의 다변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명망가나 대형 시민단체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역할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조직은 많은 사람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프로젝트들은 기존 운동이 놓쳤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상, 취미 영역에서 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인권운동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젠더 정의 지원사업이 한국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은 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두 매우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젠더 분야 역시 서양과 비교해보면 무척 변화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OSF와 같은 글로벌 재단과의 협력은 단순히 재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오픈소사이터티재단이 동아시아 젠더 이슈에 기부하는 이유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48개국 가운데 101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글로벌 성별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68.7%로 작년보다 0.9%p 올랐지만 전체 순위는 전년 94위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대부분 OECD 회원국이 상위권에 포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떠올랐지만 노동, 돌봄, 정치 참여, 디지털 환경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뚜렷하다. WEF는 현재 속도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17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오픈소사이터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OSF)이 동아시아의 젠더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OSF는 학교를 짓거나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 시민사회가 젠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법을 실험하는 데 기부금을 투입한다. 젠더를 복지나 여성 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보기 때문이다.

OSF는 지난 2021년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1억 달러(약 15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재단은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페미니스트 리더

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SF가 최근 동아시아의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젠더 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임금격차나 성폭력 같은 개별 의제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노동시장, 돌봄, 디지털 기술, AI, 정치 참여, 기후위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문제와 연결된다. 둘째,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 젠더 평등의 제도와 문화는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세대재단과 OS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권운동 및 활동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 두 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단체 최대 2000만원, 프로젝트팀 최대 1000만원이다. 운영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사업비를 정해진 활동에만 쓰게 하는 방식보다, 작은 시민사회 조직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원사업의 특징은 젠더 정의를 제도나 담론의 언어에만 가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정된 팀들은 기술, 신체, 교육, 예술,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이 직접 경험하는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인권운동이 교육과 세미나, 캠페인을



출처: shutterstock

통해 사회를 설득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배우고 움직이며 공감하는 활동이 많다.

여성을위한열린기술랩은 기술 영역에서 젠더 정의를 묻는 단체다. 이들은 AI와 알고리즘, 게임, 디지털 노동 안에 숨어 있는 젠더 편향을 다룬다. 전유진 대표는 “기술은 순수하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며 “데이터와 알고리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결국 인간의 개입과 사회의 편견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옹해하는 금속’은 을지로 금속가공 기술자와 여성 창작자를 연결하는 7주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모델링과 도면 작성, 금속 오브제 제작까지 직접 경험한다. 경쟁률이 10대1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전 대표는 “초기에는 여성들에게 기술이 왜 재미있고 중요한지 설득해야 했다”며 “이제는 기술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존무브먼트는 성폭력과 폭력의 문제를 ‘몸’의 경험으로 풀어낸다. 아직 사회협업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지만 자기방어 훈련을 기획해온 활동가들이 모였다. 합기도 선수 출신인 박은지 팀장은 자기방어 훈련의 목적이 호신술 습득에만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갑자기 호신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대응하고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존무브먼트의 활동은 폭력 피해 여성 쉼터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워크숍부터 노동조합 대상 대규모 강연까지 다양하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교육은 40~50회에 이른다. 박 팀장은 “요즘은 여성들의 신체 활동 참여도가 높아졌고 복싱이나 주짓수처럼 적극적인 격투기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여성도 늘었다”고 말했다.

교사 네트워크인 ‘아웃박스’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을 처벌이 아닌 성평등 교육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실험한다. 교육상담연구소 ‘아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사각사각 역시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회와 만나는 시도도 포함됐다. 오리집은 쿼어와 로컬의 이슈를 놀이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아트 콜렉티브로 1인 가족, 대안 가족, 쿼어 가족 등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사진전을 개최했다. 먼슬리퀴어는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팀이다. 매달 서울, 대전, 목포 등 여러 지역에서 쿼어의 삶과 경험을 담은 서사를 낭독극 형태로 선보이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을 쌓아가고 있다.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인권운동도 전국 단위의 대형 시민단체 중심에서 교육자와 개발자, 예술가, 게임 제작자,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런 작은 실험들이 쌓여 결국 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미래세대 위협하는 디지털 범죄, ‘제도와 기술’로 안전망 만들어야

IJM·더버터 공동 주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

IJM코리아와 더버터가 국내외 디지털 범죄 현황을 짚고 해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최했다. IJM은 전세계 변호사들이 주축이돼 활동하는 국제 NGO로, 인신매매 등 폭력에 노출된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구조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는 글로벌 엔지오, IT 기업,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약용한 성착취, 온라인 도박, 마약 거래, 금융 사기 등 디지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 기업, 엔지오,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IT·플랫폼 기업(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 양수영 틱톡 동북아 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 이한울에 임인텔리전스 부사장) ▶정부·공공기관(김창후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사무관, 박광선 성평등가족부 경정, 박다운 경찰청 마약조직범죄 수사과 경감,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대응단장) ▶법조계(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학계(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온라인 성착취, 국가 넘어선 연대 필요

김시원 더버터 대표는 개회사에서 “국내 아동·청소년 취재를 진행하면서 7~8년 전에는 ‘온라인 도박’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2~3년 전부터는 마약 배달이나 거래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모든 범죄가 스마트폰 하나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가 10년 내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존 타나고 IJM 온라인아동성착취대응센터 총괄디렉터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및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IJM이 2022년 직접 구조한 필리핀 출신 피해 아동 ‘캐시(가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캐시는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마닐라로 향했고, 학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방에 갇혀 성착취 라이브 스트리밍에 이용당했다.

타나고 총괄디렉터는 아동 성착취가 이미 국경을 넘는 글로벌 범죄가 됐다는 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분야를 뛰어넘는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짜 신분을 이용하고, 가상자산 등 여러 송금 수단을 활용해 범죄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타나고 디렉터는 “가해자를 검거하



지난달 23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IT 플랫폼, 수사기관,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 이건설 기자

기 위한 국제 사법 네트워크와 피해자 회복 지원은 물론 IT 플랫폼의 성착취 방지 기술과 제도, 성착취 대금 거래를 차단하는 국제 공조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ikTok, 플랫폼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양수영 틱톡 동북아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가 발표를 진행했다. 양 매니저는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속 업데이트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범죄와 플랫폼 악용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전체 틱톡 콘텐츠 가운데 유해 콘텐츠 비율은 1% 미만이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전문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심재홍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위협대응단장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

들을 소개했다. 심 단장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함께 진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의 차단 포함한 실질적 해법 모색

이어 전문가 그룹 토론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A와 B그룹으로 나뉘어 열린 논의를 이어갔다. 더버터 최지은 기자와 박선하 기자가 그룹 토론의 퍼실리테이터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착취와 유해 콘텐츠 유통으로부터 한국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20년간 사이버 범죄 수사를 맡아왔고 현재 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광선 경정은 “우리나라에선 랜덤토크 등을 통한 아동 성착취와 관련 콘텐츠 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10년 전에 랜

덤채팅 서버 하나를 통째로 압수해 분석한 결과 유통된 콘텐츠 중 60% 이상이 성착취적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김가연 엑스코리아 상무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업자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와 충돌하는 부분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준호IJM코리아 대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더버터와 IJM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변호사들이 만든 IJM… 피해자 구출 넘어 ‘사법체계’ 바꾼다

민준호 IJM코리아 대표 인터뷰

전 세계인의 식탁에 흔히 오르는 냉동 새우. 이 익숙한 식재료 뒤에 ‘아동 착취’가 숨어 있던 시기가 있었다. 2010년대 중반까지 태국의 일부 새우 가공시설에서는 아동들이 하루종일 새우 껍질을 까는 강제노동에 동원됐다. 미국 비영리단체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은 미국 국무부·월마트 등과 협력해 태국 정부를 압박했다. 국제사회의 대응 촉구와 대형 유통사의 구매 중단이 이어지면서 태국 정부는 공급망 실사와 제도 개선에 나섰고, 아동 강제노동의 관행은 크게 줄었다.

IJM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미국에서 설립된 국제 인권단체다.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강제노동, 온라인 아동 성착취 등 사회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맞서왔다.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검찰·법원 등 각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도 한다. 현재 전 세계 17개국에 29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한국 법인인 IJM코리아는 2020년 설립됐다. 최근에는 온라인 인권 문제인 ‘디지털 세이프티’ 캠페인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만난 민준호 IJM코리아 대표는 “자유와 인권’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없는 사람’을 돕는 일

-IJM이 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게 느껴진다.

“IJM 이름에는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가 들어 있다. 한국에서는 이 단어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다. IJM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생존과 보호, 노동과 자유처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다. 난민이나 인신매매 문제도 한국 사회가 더 책임감을 갖고 바라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유가 뭐냐.

“6.25전쟁 때 난민이 아니었던 한국인은 거의 없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모두가 자유를 빼앗겼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 생존해 있는 나라에서 젊은 세대가 노예와 난민, 자유와 인권 문제에 너무 안일한 건 아닐까. 영미권은 국가 형성의 역사 속에 노예무역과 노예해방, 시민전쟁이 연결돼 있어 어릴 때부터 관련 내용을 배운다. 그래서 ‘과거의 노예 문제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연결고리를 떠올리는 것이 어려울지 않다.”

-IJM은 왜 ‘사법체계’를 바꾸는 데 집중하나.

“개발도상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IJM은 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왜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지, 왜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지를 묻는다. 결국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연결되



민준호 IJM코리아 대표는 “범죄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 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IJM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건설 기자

는 경우가 많다. IJM은 법을 만들고, 경찰과 검찰 등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에게 당장 도움이 될까.

“사법체계 강화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를 해결하는 일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폭력만이 아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공포다. 사법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누군가 듣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다.”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간 인신매매

-최근 디지털 세이프티에 집중하는 이유는.

“디지털 범죄는 기존 범죄보다 확산

속도와 범위, 피해 대상이 폭발적이고 무차별적이다. 과거에는 범죄가 확산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디지털 범죄는 예상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의 평균 연령도 내려갔다. 과거 성매매나 성착취 피해자는 주로 청소년이나 성인 여성이었다면, 지금은 4~5세 아이들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매우 충격적인 변화다.”

-디지털 세이프티 생태계에서 IJM은 어떤 역할을 하나.

“IJM의 주축은 변호사 그룹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정책 개선을 지원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필리핀이 대표적이다. 불과 7~8년 전만 해도 필리핀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해도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법으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려면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가해자들은 ‘화질이 나빠 어른인 줄 알았다’ ‘직접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갔다. IJM은 필리핀 검찰청, 대법원 등과 연계해 관련 법이 강화되도록 도왔고 이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겼다.”

-한국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한국은 삼성 갤럭시를 생산하는 나라이고, ‘라인’ ‘카카오톡’ 등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메신저 플랫폼도 갖고 있다.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플랫폼만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디지털 세이프티는 ESG 흐름과도 연결된다. 한국은 아직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이 몰려 있다.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전후로 ‘S’, 즉 소셜 카테고리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 문제, 공급망에 투입되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문제가 포함된다. 한국은 반도체, 금융, IT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만 그 위상에 비해 책임감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다. IJM코리아는 한국의 금융·IT 기업들이 디지털 세이프티와 온라인 성착취 방지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함께 돈 버는 마을’ 만드는 청년들

2026 청년마을 리포트

로컬 청년과 사회연대경제

충남 아산시 도고면은 한때 ‘온천’ 하나로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1970년대 도고온천천역 주변에는 불거질 틈 없이 관광버스 행렬이 이어졌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고 국내 여행지가 다양해지면서 노후화된 온천은 점차 여행객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졌다.

2019년, 고향인 아산으로 돌아온 최낙원(33)씨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무엇이 바뀌길 바라는지 물었다. 답은 한결같았다. “온천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지역 청년들과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를 세우고 도고의 자원을 다시 엮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선정됐다. 온천과 세계꽃식물원 등 지역 명소를 연결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빈집을 고쳐 숙박시설로 바꾼 ‘마을 호텔’도 운영했다. 잊혀 가던 관광지에 다시 방문객이 들어오자 상권에도 활기가 돌아왔다.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최씨는 “이제는 주민들이 청년들의 일을 도와주시고, 먼저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도고의 사례처럼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하며 주민과 함께 경제활동을 만드는 청년들은 지역에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린다. 단순히 가게를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런 활동을 넓게는 ‘사회연대경제’라고 부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이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형태다. 황종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와 청년들이 만나면 시너지를 낼



충남 아산시 도고면 주민과 청년들이 설 명절을 맞아 웃놀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수 있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고, 지역에는 인구감소와 생활 서비스 축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상한 청년에서 마을의 동료로

로컬로 이주한 청년이 곧바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사는 것만으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 사회심리학자 맥밀런과 채비스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소속감 ▶구성원 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각자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믿음 ▶함께한 시간에서 생기는 정서적 유대 등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청년의 지역 정착도 마찬가지다. 오래 남으려면 주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해야 한다.

현실의 문턱은 높다. 주민들은 낯선 청년을 곧바로 믿기 어렵다. “지원금 받으러 온 것 아닌가” “마을 자원만 쓰고 떠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따라붙는다. 청년 입장에서조차 신뢰가 없는 상

태에서는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어렵고, 주민과 협업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 황 교수는 “결국 많은 청년이 홀로 창업하거나 외부인들끼리 커뮤니티를 꾸린다”며 “결국 청년들끼리만 교류하다가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의식적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 강원도 태백에서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김신에 전 이사장은 “문화예술 코워킹스페이스를 연 뒤 근처의 같은 식당을 매일 찾았다. 한 식당 주인과 얼굴을 익히고 친분을 쌓으면 다음 식당으로 옮겨가는 식이었다. 그렇게 쌓은 친밀감은 신뢰가 됐다. 김 전 이사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던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자 먼저 궁금해하고 도와주려 했다”고 말했다.

주민의 경제활동을 돕는 방식으로 관계를 트는 청년들도 있다. 충남 홍성에서 로컬 스타트업 ‘초록코끼리’를 창업한 김만이 대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 컨설팅 기관에서 일한 경험을 살렸다. 그는 지역 농가 30여 곳과 협업체 전환경 농축산물 밀키트와 로컬푸드

새벽배송 사업을 했다. 농민들에게 농법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알려주고,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주는 일도 했다. 농산물 생산량이 많을 때는 청년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를 도왔고, 수급이 부족할 때는 농민들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물량을 내줬다. 청년들은 기존 유통 판로보다 10%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사들이며 농민들의 수익도 높였다.

느리지만 오래 가는 조직

이런 활동이 오래가려면 조직의 형태도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형태를 선택하는 이유다. 대표 한 사람이 빠르게 주요 결정을 내리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조합원·주민·참여자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익을 어디에 쓸지, 지역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어떤 사업을 할지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최낙원 온어스 이사장은 “일반 회사보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더 걸

리지만, 그만큼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계속 확인하게 된다”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공동의 방향성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처음의 미션을 지키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얻는 것도 있다.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면서 회복하는 자존감이다. 김만이 초록코끼리 대표는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순위로 중요하지만, 그다음으로는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는 청년 각자가 가진 역량이 더 직접 드러나고, 마을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자신감도 생긴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청년이 하게 되면, 로컬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컬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의 판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20곳이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해보며, 그 일을 직업과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돕는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 현장형 인재를 키우고, 미취업 청년 2500명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황종규 교수는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영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이 나 작업장, 빈집, 유휴공간 같은 자리가 있어야 주민과 반복해서 만나고, 신뢰를 쌓고, 사업도 이어갈 수 있다”며 “조세, 공간, 행정절차 지원을 묶어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사람 키워 마을 살리다… 주민 주도 지역상생 나서

사회혁신 포커스 리뷰

JDC ‘리스타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한때 창고였던 건물에 커피 향이 짙게 났던 카페로 변신했다. 빈집은 여행객이 머무는 숙소가 됐고, 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마을 공동기금을 만든다. 평생 물질을 하던 해녀는 바리스타로, 농사를 짓던 주민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운영자가 됐다. 주민들이 다시 모이고 함께 일하면서 느슨해졌던 마을공동체도 다시 끈끈해졌다.

제주 중산간 마을에서 벌어지는 변화다. 제주는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농어촌의 고민이 존재한다. 마을경제 활동이 약해질수록 주민들의 활동도 줄어들고 마을공동체 역시 활력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리스타트(Re-START)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하 리스타트)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 아이

디어를 마을 유휴공간과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2012년 시작해 현재까지 49개 마을공동체 사업장을 지원하며 제주형 지역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지역 활성화 사업은 흔히 시설을 새로 짓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원이 끝나면 사업도 함께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리스타트’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 주민들은 공모를 통해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JDC는 사업비와 함께 전문컨설팅·브랜딩·행정지원 등을 제공한다. 방치됐던 공간은 카페와 숙박시설, 로컬푸드 판매장, 체험 공간 등으로 다시 태어난다.

운영의 주체도 주민이다. 기획부터 운영, 서비스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났다. 주민 역량 자체를 지역의 경쟁력으로 키우겠다는 접근이다.

덕분에 지난 14년간 제주 곳곳에서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서귀포시



제주 애월읍의 중산간 마을 어음2리에 마련된 농촌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다. [사진 JDC]

대정읍 인성리는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는 유휴주택을 풀빌라형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었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는 귀농·귀촌 가족을 위한 주택을 마련해 새로운 주민을 유입시켰다. 이밖에 청년농부들의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마을(상모리), 유휴공간을 식당으로 개조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을(창천리) 등의 사례도 있다.

최근 기업의 지역상생 사회공헌 사업도 조금씩 방향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리스타트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결과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역경제와 공동체 약화라는 구조적 원인에 집

중했다. 지역 자원과 유휴공간을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연결해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도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다. 주민들은 회계와 서비스, 마케팅 교육을 받고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사업 운영자로 성장하고 있다.

JDC는 앞으로 사업장을 늘리는 것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마을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속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시장에서도 자립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초기 단계를 넘어선 마을공동체 사업장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안착하도록 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마을기업의 수익이 지역 일자리와 복지, 공동체 활동으로 다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제주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 모델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지역상생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

‘10수생’이 만든 장학생 27만명… “기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일상의 기부자들

백태규 잇을 의장 인터뷰

한때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의사가 되겠다며 교육대학을 자퇴하고 수능만 열 번 쳤다. 의대에는 결국 못 갔다. 친구들이 공무원, 변호사, 대기업 직원으로 자리잡는 사이 그의 시간은 어두운 방 안에 멈췄다. 꼬리표가 남았다. ‘10수생’. 빛에 시달리던 집안을 일으키겠다 약속했던 장남은 어느새 가족의 마지막 남은 짐이 됐다. 여동생에게 용돈 받는 처지가 됐지만 가족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나쁜 생각 할까 겁나서.’

잇을 창업자인 백태규(45) 의장은 꽤나 오랜 시간 ‘나쁜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다.’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자괴감, 수치심, 열등감에 휩싸여 수능을 포기하고도 한참을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러던 어느날, 별걱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방에는 이런 글귀가 가득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 가족들은 장남이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백태규 의장이 2012년 설립한 잇을은 직영점 160개, 기숙학원 2개를 가진 연 매출 830억원 규모의 교육 기업으로 성장했다. 성공한 창업자로 불리는 백 의장에게는 매출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가 있다. 기부와 봉사. 그는 지금까지 장학생 27만 명을 배출했다. 그 외 보호종료아동, 학교 밖 청소년, 개도국 아동, 개도국 학교 시설 지원 등 기부와

봉사활동 내역은 하나하나 세기도 어렵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에만 11억6000만 원을 기부해 ‘필란트로피 클럽’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잇을 본사에서 만난 백 의장은 “월세도 못 낼 때부터 기아대책에 5년 할부로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만 벌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수험생 도우려 창업, 첫 기부는 ‘5년 할부’
-5년 할부로 기부했다고요.

“창업 9년차에 성장 중이었지만 매달 빠듯했어요. 직원 월급도 겨우 줬고, 월세가 밀릴 때도 있었어요. 하던 일 그만두고 사업을 돌던 여동생도 ‘지금 기부할 때냐, 미쳤다’며 말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부할 생각을 했나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만으로는 동력이 안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동생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애초에 사업 동기 자체가 돈이 아니라 ‘세상에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절실함 때문이었으니까요.”

-가치 있는 인간이요.

“오랜 수험 생활로 꽤 큰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 있는데, 그 끝에 가보니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을 깨달았어요. 창업한 것도 긴 수험 생활 내내 ‘딱 이것만 누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하던 생각 때문이에요. 저는 실패했지만,



지난 1일 만난 백태규 잇을 의장은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것도 나의 미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눔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이건설 기자

제게 필요했던 그 누군가가 되기로 한 거죠.”

-자습학원은 잘 됐나요.

“현실은 ‘공포의 외국인구단’이었죠(웃음). 낚시하러 도망간 애들 잡으러 다니고, 밤새 이야기 들어주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넷이 합쳐 30수생’이라며 자조하던 서른이 다 된 남학생들이 있었어요. 막막해하면 ”난 혼자 십수다. 근데 잘 산다“면서 위로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돈 내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했고요.”

-자습학원 시절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 변호사 된 사람도 많고, 원하

던 대학에 못 간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때 태규 형이 공짜로 공부시켜줬다’면서 찾아오는 친구도 있어요. 고마운 일이지요.”

기부가 만든 성장의 선순환

백태규 의장의 입에선 도움이 필요한 사회문제와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 나왔다. 그가 나눔 영역에 본격적으로 눈을 뜬 건 2020년 기아대책을 만나면서부터다. 몽골 학교에 800만원어치 교육 기자재를 기부하는 일을 시작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섰다.

-활동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봉사나 기부에 참여할수록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가급적 사람들이 비선호해서 가장 소외된 곳을 돕고 싶단 마음은 있습니다.”

-회사 슬로건도 의미심장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인류에 봉사한다.’ 거창하지만 진심입니다.”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라고 깎아 내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처 받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할수록 에너지를 받고, 사업도 더 성장하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기부 규모와 기업 성장 규모가 정비례합니다. 또, 업무의 질 자체도 높아져요.”

백태규 의장에게 최종 목표를 묻자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눈빛은 진지했다. 가까운 미래를 묻자 “유니콘 기업이 된 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배달의민족 김봉진 창업자의 뒤를 이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기빙플레이지’에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가치한 십수생 백수가 ‘남을 돕겠다’는 의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업 때 결심한대로 세상을 살리는 데 앞으로의 삶을 쓸 겁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기부와 나눔은 돌아옵니다.”

박선하 더버터 기자

마음건강 적신호, 점점 어려워진다… “예방과 회복 잇는 안전망 필요”

굿네이버스 마음건강증진사업

“10분. 스마트폰을 켭니다. 링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배팅을 합니다. 한 아이가 도박에 빠지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6 아동·청소년 도박문제예방 포럼’에서 권민정 굿네이버스 국내사업 본부장이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굿네이버스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동 주최했다. 아동·청소년 도박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로 규정하고 학교와 가정, 전문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커뮤니케이터 케도는 “지금은 도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만,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하는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청소년 도박 중독은 성인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는 시기와 도박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기 예방교육과 위험군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예방은 보편 교육을 시작으로 위험군 상담과 치유까지 이어지는 연



지난 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행된 ‘2026 아동·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 현장. [사진 굿네이버스]

속적인 체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도박이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도박 경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47.1%는 12세 이전 처음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둘러싼 경고 신호도 잇따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9~24세)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의 42.3%는 평소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정신건강실

태조사(소아·청소년)’에서는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의 최근 1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4.3%에 그쳤다.

굿네이버스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회정서교육부터 생명존중교육, 도박 예방, 디지털 환경 안전망 구축까지 아우르는 마음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대상 교육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를 위한 연수와 상담 연계 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마음건강증진교육 ‘내 마음을 피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BMW코리아미래재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전국 초등학교 371개교, 4만834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교육 전문가와 현직 교사의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K-SEL) 핵심역량에 맞춰 전면

개편하면서 전국 1296개교, 17만2940명 규모로 진행 중이다. 윤은지 굿네이버스 마음건강증진교육 강사는 “예전에는 거친 말이나 행동이 주로 고학년에서 나타났다면 지금은 저학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며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나쁘다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접하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수업이지만 끝날 무렵이면 아이들의 변화를 느낄 때가 있다”며 “단기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교육을 이어가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음건강 악화의 저연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거의 두 배로 늘었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발굴이 늘어났기보다 실제 마음건강 문제가 증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 이어 “과거에는 가족과 학업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또래 관계와 사회성 문제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연령도 낮아졌고 자해와 자살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이 최근 진료 현장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생명존중사업에는 지난해 80만6192명이 참여했다. 도박문제예방사업에는 36만6452명이 참여했다.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상담 연계까지 함께 운영하며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음건강증진사업은 학교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굿네이버스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하나금융그룹과 지난해부터 ‘도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도박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도박문제 상담을 연계한 통합형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학부모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총 40만8600명이 참여했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이번 포럼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굿네이버스는 아동·청소년이 도박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

누군가의 내일을 바꾼 기부자들



연금으로 모은 500만원, 자선냄비에 담다
김맹근 기부자

김맹근 기부자는 은평의마을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겨울이면 마을에서 열리는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에 참여한다. 6년 전 처음 시종식 현장을 지켜보던 날, 그는 “나도 나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빈곤과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그는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20년 12월 첫 기부를 시작한 김 기부자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자선냄비 시종식에서 10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누적 500만원을 나눴다. 장애인연금과 노령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이라 기부를 결심하기까지 망설임도 있었다. 그러나 기부를 할수록 마음은 채워진다. 김 기부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느꼈다”고 했다.



지역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주다
김태욱 기부자

매년 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들은 ‘입학 축하금’을 받는다. 지역에서 낙농 설비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김태욱 서진이엔지 대표가 아이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마련한 축하금이다.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학생에게는 5만원이 전달된다.

김 기부자가 지역에서 이런 나눔을 시작한 건 2019년이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으로서 지역의 미래는 결국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2024년부터는 국내 다른 지역과 해외로도 시선을 넓혔다. 국내외 위기가정 아동을 위해 굿네이버스를 통해 약 1400만원을 후원했다.

사업 초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노력 끝에 사업이 안정되자마자 곧바로 나눔을 실천했다. 김 기부자는 “지금도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더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눔은 결국 나를 향한 수련입니다”
대원스님

“나눔은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와 남이 숨 쉴 자리를 남겨두는 일이에요. 순간순간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나아가면 나눔은 결국 나를 향한 자비행(慈悲行)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원스님은 국경없는의사회 고액후원자 모임 ‘샹프론티에르 클럽’ 멤버로, 8년째 의료구호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념과 사상을 떠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고통 속에 놓인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자비로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다. 대원스님은 “병고의 고통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으며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마저 있다면 그 고통은 엄청나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훌륭한 분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민 것 뿐”이라고 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원스님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동국대학교에도 지난 31년간 총 7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며 교육 분야에 오랜 지원을 이어왔다.



폭력을 막는 시스템에 힘을 보태다
문군모 기부자

문군모 기부자는 법과 제도가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다. 자원 무역 사업을 하던 그는 18년 전 경쟁 업체들의 허위 고소로 법정에서 싸웠다. 출국금지로 해외 사업도 쟁길 수 없게 됐다. 4년 만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큰 손해를 안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그때 그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지켜주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약 3년 전 IJM코리아 후원을 시작한 것도 이 경험 때문이었다.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에 노출된 피해 아동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서 나아가 폭력을 막을 시스템을 만드는 IJM의 활동에 공감했다. 문 기부자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힘을 보태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다시 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부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액기부자가 된 ‘10수생’
백태규 기부자

백태규 기부자는 긴 실패의 시간을 지나 교육 기업가가 됐다. 의사의 꿈을 품고 수능에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한동안 깊은 좌절 속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난 그는 2012년 잇을을 창업해 연 매출 830억원 규모의 교육 기업으로 키웠다.

성공 이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나눔’이었다. 지금까지 27만 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보호종료아동, 학교 밖 청소년, 개발도상국 아동 등을 위한 기부와 봉사도 이어왔다.

고액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로 기아대책의 ‘필란트로피 클럽’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할수록 에너지와 받고, 사업도 더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삶도 세상을 살리는 데 쓰고 싶다”고 말했다.



“혼자만 편하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인가요”
손단비 기부자

15년 전, 대학생이던 손단비 기부자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급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부를 하고 싶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 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시작했다. 2년 뒤 직장인이 된 뒤에는 기부금을 늘렸다. 매달 소득의 1%를 나누기로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결혼을 앞두고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시작이 우리 인생을 응원하는 힘이 될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예비 신랑은 흔쾌히 동의했다.

이렇게 2011년 2월부터 이어온 정기 기부는 어느덧 16년 차가 됐다.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일시기부도 더 했다. 현재 그는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인권 교육 사업을 맡고 있다. “나 혼자 편하게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모두 함께 잘 살고 싶은 제 마음의 방에 항상 불을 켜두고 싶어요.”



20년간 이어온 방글라데시와의 인연
손영학 기부자

손영학 후원자가 방글라데시와 처음 연결된 건 2006년이였다. 폴랜인터내셔널리아를 통해 오지 마을에 사는 열두 살 여자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 아이를 더 후원했다. 시골 마을에서 어렵게 자란 손 후원자는 “아이들을 보면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했다.

방글라데시의 마을도 직접 찾아간다. 지난 20년 동안 10차례 넘게 비행기에 올랐다. 극심한 매연과 불편한 교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매일 조금씩 아껴 모은 돈으로 2년에 한 번씩 축구공, 배드민턴 라켓, 학용품 등 선물을 한가득 챙겨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70대 초반이 된 손 기부자는 “앞으로 최소 다섯 번은 더 방글라데시를 찾고 싶다”고 했다. “럭셔리한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보다 고물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아요. 후원받은 아이들이 언젠가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현금 6000만원 들고 NGO를 찾아간 이유
여흥구 기부자

여흥구 기부자는 현금 6000만원을 들고 세이브더칠드런 본사를 찾았다. 7년 전 겨울, 작은 식품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시절이었다. 돈은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월 3만원에서 월 15만원까지 정기기부금을 조금씩 늘리다가 결심한 일시 기부였다. 6000만원은 여 기부자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다.

지금도 그는 형편이 될 때마다 기부한다. 많으면 수백만원씩 전달하다 보니 누적 금액이 1억원이 됐다. 그래도 여전히 케어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 기부자 눈에 자주 밟힌다. 주변에서는 “너무 기부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씨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나”고 대꾸한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기부하며 살고 싶어요.”



‘청년의 집’ 고민하는 공인중개사 1타 강사
오시훈 기부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강의 ‘1타 강사’인 오시훈 기부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다. 특강과 책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한다. 2023년 12월 2000만원을 처음 후원한 뒤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경제금융 특강을 재능기부하고, 주거 문제와 전세사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한다. 그의 나눔은 수강생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뒤 그를 따라 기부에 동참하거나,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수강생도 늘고 있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 기부금을 계속 늘려 언젠가는 1년에 1억원씩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밥 한 줄 못 싸주던 엄마의 나눔
정혜라 기부자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일은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 한부모가정의 가장이었던 정혜라 기부자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늘 버거웠다.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고 받아온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아이들 소풍날엔 속이 팍 찬 김밥 한 줄을 싸주지 못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형편을 증명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하지만 반찬을 나눠주고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 덕분에 어두운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다.

작은 가게를 열고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자마자 정 기부자는 나눔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면서 주변인들과 ‘봉사회’도 만들었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삶은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기부도 늘렸다. 2023년에는 대한사회복지회에 정기기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대한사회복지회 강원지역 후원회장까지 맡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권하고 있다.

2026 파이워크 참여기관

